

[현안리포트 05- 016]

**쿼터 해제에 따른  
중미.카리브해 지역 섬유산업 동향**

**2005. 5**

**KOTRA 해외조사팀**

## [목 차]

I. 세계 석유교역 현황 .....	1
II. 미국 석유시장 동향 .....	2
III. 중미.카리브의 대미 석유수출 동향 .....	4
IV. 한국의 대 중미.카리브 석유수출 동향 .....	6
V. 쿼터해제에 따른 중미.카리브 석유수출국 영향 (가격경쟁력 측면, 노동력 측면, 주요품목별 영향 및 현지업체 및 현지진출 국내업체 동향) .....	7
1.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	7
2.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	11
3. 도미니카공화국 .....	15
VI. 중미, 카리브 국가별 대책 수립 동향 .....	21
1.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	21
2.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	22
3. 도미니카공화국 .....	22
VII.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	23

## I. 세계 섬유교역 현황

□ 세계 섬유교역량은 수출 3천9백30억불, 수입도 3천9백30억불로 지난 85년에 비해 약 3.7배 늘어난 규모를 보이고 있음.

○ 현재 세계 총 교역 중 섬유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임.

### <세계 섬유류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불)

	1985	1995	2000	2001	2002
수 출	101,003	345,180	389,533	378,748	393,031
수 입	111,525	350,343	390,316	385,745	393,023

(자료원 :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 세계 섬유 수출은 1995년 대비 2003년에 22% 증가했으며, 의류 수출도 8년 간 48%가 증가.

○ 아시아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만 세계 섬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며, 현재 최대 섬유 수입시장인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도 1위를 기록하며, 지속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특히 지난 90년대 초 시장개방화 이후 93년에 최초로 세계 섬유 수출시장 점유율 10% 돌파

- 최근 중국의 섬유 수출규모는 80년대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

### <세계 섬유.의류 수출 현황(중국 비중 포함)>

(단위 : 억불)

		1995	2003	증감율
섬 유	세 계	1,120	1,370	22%
	중국 비중	12.4%	19.7% <sup>1</sup>	+7.3%
의 류	세 계	1,250	1,850	48%
	중 국	19.3%	28.1%	+8.8%

(자료원 : WTO “세계 섬유.의류 교역 현황” 자료)

- 세계 섬유 교역은 중국 및 아시아국가의 수출과 미국과 EU의 수입 구도로 요약

## II. 미국 섬유시장 동향

- 세계 최대 섬유 수입국은 미국으로서 1995년 세계 섬유 수입시장에서의 미국의 점유율은 14%였으나, 2002년에는 21%로 증가하여 최대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음.
  - 1995년-2002년 미국의 섬유 수입은 연평균 9%, 의류는 5.5% 성장

<표 1> 미국의 국별 섬유·의류 수입규모

(단위 : 백만불)

	2003		2004		2005(1-2)	
	섬유	의류	섬유	의류	섬유	의류
총계	16,272	61,162	18,545	64,767	3,153	10,856
중국	4,351	7,258	5,632	8,928	1,055	2,307
EU(15국)	2,277	2,060	2,462	2,068	395	336
멕시코	1,037	6,903	1,108	6,685	169	929
홍콩	116	3,702	110	3,849	18	489
캐나다	1,549	1,568	1,581	1,504	264	223
한국	761	1,806	771	1,809	121	224
일본	301	221	351	290	55	24
ASEAN <sup>1)</sup>	942	10,736	993	11,151	135	1,880
CBI <sup>2)</sup>	64	9,611	71	9,952	10	1,459

(자료원 : 미국 섬유국)

- 주1) ASEAN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주2) CBI : 자메이카, 도미니카 공화국, 트리니다드토바 및 중미국가 등 카리브 연안국

- 최근 미국의 섬유류 수입현황 (2005년 1월 통계)

- 2005년 1월 미국의 섬유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42% 증가한

38억9천백SM를 기록하였으며, 금액으로는 6.98% 증가한 68억8천6백만불을 기록

- 의류제품 수입 물량은 8.47% 증가한 16억4천6백만SM을 기록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금액으로는 6.6% 증가한 53억1천8백만불을 기록하여 수입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 금액은 하락세
  - 이로 인해 의류제품의 평균 수입단가는 3.23불/SM 으로 전년에 비해 0.4불 하락

**<표 1> 미국의 섬유류 수입 실적**

(단위 : SME(스퀘어미터), 불, %)

구분	2004년 1월			2005년 1월			증감율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섬유사	251,363,985	114,251,032	0.45	287,283,497	134,409,050	0.47	14.29	17.64
섬유직물	744,170,750	447,182,826	0.6	772,499,061	461,836,640	0.6	3.81	3.28
의류제품	1,517,048,798	4,988,622,809	3.29	1,645,559,900	5,318,009,925	3.23	8.47	6.6
기타섬유제품	1,144,622,150	886,484,284	0.77	1,186,826,680	971,635,100	0.82	3.69	9.61
합계	3,657,205,683	6,436,540,951	1.76	3,892,169,138	6,885,890,715	1.77	6.42	6.98

- 쿼터 폐지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1월 섬유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9.83% 증가한 11억4천4백만SM를 기록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9.38% 증가한 15억5천만불을 기록
  - 이 중 의류 수입은 물량으로는 47.05% 증가한 3억5천7백만SM, 금액으로는 41.29% 증가한 10억3천5백만불로 전체적으로 의류제품 수입이 대폭 증가
- 미국시장에 있어 중국 섬유류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섬유류 전체가 물량으로 29.4%, 금액으로 22.5%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의류제품의 경우 물량으로 21.4%, 금액으로 19.5%의 점유율 기록

## <표 2> 중국으로부터의 석유류 수입실적

(단위 : SME(스퀘어미터), 불, %)

구분	2004년 1월			2005년 1월			증감율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석유사	3,219,611	1,477,744	0.46	3,848,034	2,053,232	0.53	19.52	38.94
석유직물	88,050,144	55,315,443	0.63	102,533,707	53,322,167	0.52	16.45	-3.6
의류제품	243,009,318	732,837,678	3.02	357,339,652	1,035,412,200	2.9	47.05	41.29
기타석유제품	620,520,480	408,578,500	0.66	680,417,923	459,457,072	0.68	9.65	12.45
<b>합계</b>	<b>954,799,553</b>	<b>1,198,209,365</b>	<b>1.25</b>	<b>1,144,139,316</b>	<b>1,550,244,671</b>	<b>1.35</b>	<b>19.83</b>	<b>29.38</b>

- CBI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16%의 증가를 보여 수입업자들이 인근 국가에서 소싱하려는 의도를 보여 줌.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중 의류제품이 큰 폭의 수입증가를 보였고, 수입단가도 큰 폭으로 하락 중.
- 중국으로부터의 석유류 수입이 통계상으로 급증함에 따라 미국 내 석유생산업자 중심으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청원으로 대중국 세이프가드 조치 압박

### Ⅲ. 중미.카리브의 대미 석유수출 동향

- 중미.카리브 전체 수출 현황 : 석유 수출 감소세, 의류 수출 증가세
  - 중미 CAFTA 5개국과 도미니카공화국 전체로 보았을 때 석유쿼터가 폐지된 2005년 들어 2월까지 석유류는 11.58%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주력 품목이 의류의 경우 11.36%로 증가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중국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중미.카리브 국가는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에 기인한 비교우위가 유효.
  - 중미 CAFTA 5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외에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카리브 중소국가 전체를 포함한 CBI 총계로도 석유류

는 11.28% 감소 추세이나, 의류는 10.92% 증가.

<중미.카리브 국가의 대미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2003		2004		2005(1-2)	
	섬유	의류	섬유	의류	섬유	의류
미국수입총계	16,272	61,162	18,545	64,767	3,153	10,856
과테말라	12	1,762	13	1,947	2	328
온두라스	4	2,503	4	2,672	1	398
엘살바돌	38	1,720	37	1,720	3	246
코스타리카	5	589	8	516	2	67
니카라과	0	484	0	595	0	110
도미니카	4	2,124	7	2,059	1	250
CAFTA + 도미니카 <sup>1)</sup>	63	9,182	69	9,509	9	1,399
CBI <sup>2)</sup>	65	9,611	71	9,952	10	1,459

(자료원 : 미국 섬유국)

주1) 중미 CAFTA 5개국 및 도미니카공화국 총계

주2) CBI 수혜국인 CAFTA 5개국, 도미니카공화국 및 자메이카, 트리나토바고 등 카리브 도서국가를 포함한 총계

□ 중미 CAFTA, 도미니카 국가별 수출 현황

○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대미 의류 수출 상승세

- 과테말라 : 섬유 및 의류 수출 증가세
- 온두라스 : 섬유 및 의류 수출 증가세
- 엘살바돌 : 섬유 수출 감소, 의류수출 증가세
- 니카라과 : 섬유 수출 중단, 의류수출 급증세(32.50%)
- 코스타리카 : 섬유 수출 증가세, 의류수출 감소세
- 도미니카 : 섬유 수출 증가세, 의류수출 보합세

○ 쿼터 폐지 이후, 중국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고,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과테말라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중미카리브 지역 중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 가격경쟁력이 있는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의 수출이 크게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쿼터 폐지 후 중미.카리브 국가별 대미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

	2005(1-2)		2005(1-2)	
	섬유	증감율	의류	증감율
미국수입총계	3,153	14.99	10,856	13.78
과테말라	2	13.64	328	19.61
온두라스	1	12.34	398	14.89
엘살바도르	3	-33.55	246	3.98
코스타리카	2	54.61	67	-5.24
니카라과	0	-100.00	110	32.50
도미니카	1	18.32	250	1.88
CAFTA + 도미니카 <sup>1)</sup>	9	-11.58	1,399	11.36
CBI <sup>2)</sup>	10	-11.28	1,459	10.92

(자료원 : 미국 섬유국)

#### IV. 한국의 대 중미.카리브 섬유수출 동향

- 2000년대 들어 감소세와 보합세를 반복하다가 쿼터 폐지 후 2005년 1/4분기는 급감 추세
  - 중미.카리브지역 섬유산업 경기의 하락세 및 현지 투자진출 국내 섬유업체의 고전으로 인해 섬유 원부자재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
  - 우리나라의 대 중미.카리브 섬유수출 규모는 약 6억-6억5천만불 규모였으나, 2005년도에는 쿼터 폐지에 따른 동 지역의 섬유산업 침체로 수출이 4억5천만-5억불 선에 그칠 전망
- 전반적인 침체 속에 인근국 중 상대적으로 노동단가가 저렴한 니카라과에 대한 수출만 증가할 전망
  - 중미.카리브 인근국 중 상대적으로 임금 단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니카라과로 2004년부터 국내업체 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니카라과 섬유산업의 호조 예상으로 한국의 대 니카라과 섬유 원부자재 수출만이 증가할 전망

- 2005년들어 코스타리카도 수출이 증가했으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되고 나머지 여타 국가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감소세가 심화될 전망

### 한국의 대 중미.카리브 섬유수출 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1~3월)
과테말라	373.7 (-5.9%)	404.7 (8.3%)	389.2 (-3.8%)	383.7 (-1.4%)	62.1 (-36.1%)
온두라스	111.9 (-1.2%)	103.0 (-7.9%)	97.0 (-5.9%)	93.1 (-4.0%)	15.1 (-34.4%)
엘살바도르	45.1 (-17.9%)	29.5 (-34.6%)	27.7 (-6.0%)	12.6 (-54.7%)	0.8 (-84.8%)
코스타리카	5.3 (-39.6%)	2.8 (-47.6%)	1.5 (-45.7%)	1.3 (-13.6%)	0.9 (194.5%)
니카라과	42.6 (36.1%)	66.4 (55.9%)	47.1 (-29.0%)	80.2 (70.2%)	23.4 (63.7%)
도미니카	62.2 (-27.8%)	45.2 (-27.3%)	35.2 (-22.0%)	31.7 (-10.0%)	6.1 (-2.9%)
총 계	640.8 (-7.4%)	651.6 (1.7%)	597.7 (-8.3%)	602.6 (0.8%)	108.4 (-53.9%)

(자료원 : 무역협회 KOTIS 통계)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 V. 쿼터해제에 따른 중미.카리브 섬유수출국 영향

### 1.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가. 우리나라의 섬유류 현지 수출현황, 기업진출 및 대미 우회수출 현황

□ 우리나라의 현지 수출현황

- 우리나라의 대과테말라 섬유류 수출은 2002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음. 특히 2005년 섬유쿼타 해제 이후 1-3월까지 한국의 대 과테말라 수출은 더욱 위축되어 전년 동기 대비 36.1%나 감소하고 있으며, 인근국인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사정도 이와 비슷한 상황임.

우리나라의 섬유류 수출동향

(단위: 백만불)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1~3월)
과테말라	373.7 (-5.9%)	404.7 (8.3%)	389.2 (-3.8%)	383.7 (-1.4%)	62.1 (-36.1%)
온두라스	111.9 (-1.2%)	103.0 (-7.9%)	97.0 (-5.9%)	93.1 (-4.0%)	15.1 (-34.4%)
엘살바도르	45.1 (-17.9%)	29.5 (-34.6%)	27.7 (-6.0%)	12.6 (-54.7%)	0.8 (-84.8%)

(자료원 : 무역협회 KOTIS 통계)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 우리나라의 현지 기업진출 현황

- 과테말라에 진출한 한국계 봉제기업 수는 145개사(2004년 말, 과테말라 섬유조합통계)에 달하나 미국교포기업의 투자와 현지에서 자생한 기업을 포함하고 있어 아래 통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기업진출 현황(순투자건수)

(단위: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1~2월
과테말라	3	2	2	1	0(58)
온두라스	2	1	0	3	0(32)
엘살바도르	0	1	0	0	0(1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주) ( )는 누계건수

## □ 우리 기업의 대미 우회수출 현황

- 과테말라 섬유조합에 따르면 전체 봉제업체 222개사 중 한국계가 145개사로 약 65%를 차지함. 따라서 한국의 대미 우회수출액은 과테말라 대미 의류수출액 18.7억불의 65%수준인 약 12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나.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의 대미 의류 수출 동향

- 2001년 이후 대미 수출물량은 큰 변화가 없으나, 2005년 쿼터해제 이후 과테말라의 경우 대미 수출물량이 오히려 증가하였음. 이는 상대적으로 쿼터 적용 품목이 많은 과테말라의 경우 의류 수출업체들이 연말수요를 쿼터 해제 시점인 2005년까지 대기하였다가 선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온두라스는 2000년대 들어 꾸준히 대미 수출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쿼터 폐지 후인 2005년 2월까지도 동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엘살바도르의 대미 수출은 2004년부터 보합세를 보이다가 2005년 들어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는 상황임.

### 대미 의류 수출액 추이

(단위:미백만불)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1~2
과테말라	1,436	1,429	1,414	1,868	331.5(19.2%)
온두라스	2,437	2,503	2,567	2,742	250.8(2.9%)
엘살바도르	1,633	1,674	1,719	1,719	411.6(-13.2%)

(자료원 : 과테말라 섬유조합(VESTEX))

주1)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주2) 미국 섬유국 통계와 과테말라 섬유조합 통계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 다. 쿼터 해제에 따른 3개국 섬유산업 영향 및 동향

### 1) 가격경쟁력 측면(수출단가)의 영향

- VESTEX에 따르면 2004년 대미 의류 수출단가 하락 정도는 0.1% 정도이었으나 2005년은 섬유쿼타 해제에 따른 경쟁 심화로 2%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일부 하청업체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2) 노동력 측면의 영향

- 봉제업체들에 의하면 2004년 봉제업계 해고 인원은 1,161명이었으나, 2005년~2006년 기준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비용이 지속 상승한다면 약 5,000명 정도 해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3) 주요품목별 (원단, 원사) 영향

- 원단, 원사의 수입선은 비용절감을 위해 주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제3국산 원부자재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들 수입선을 점진적으로 미국과 중미국으로 전환시켜야 나가야 할 것임.

### 4) 현지업체 동향

- 현지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수입상들과 제휴를 하고 있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소위 FULL-PACKAGE (과테말라에서 염색-재단-봉제-완성-포장 전체공정을 수행) 라인 구축을 위해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 5) 현지진출 국내업체 동향

- 기본적으로는 현지업체와 맥락을 같이 하여 FULL-PACKAGE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큰 기업의 소규모 영세 하청업체에 대한 흡수합병이 가속화할 것임.
- 임금이 저렴한 니카라과로의 공장이전도 가시화할 것임.

## 2.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 가. 우리나라의 섬유류 현지 수출현황, 기업진출 및 대미 우회수출 현황

#### □ 우리나라의 현지 수출현황

- 우리나라의 대니카라과 섬유류 수출은 2001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음. 그러나 2005년 들어서는 3월까지 한국의 대 니카라과 수출이 급증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아직도 금액은 미미한 상황임.
- 반면 니카라과에 대한 우리나라의 섬유류 수출은 인근국에 비해 상대적인 임금단가의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2003년도만 제외하고 급증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우리 기업의 유입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섬유류 수출동향

(단위: 백만불)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1~3월)
코스타리카	5.3 (-39.6%)	2.8 (-47.6%)	1.5 (-45.7%)	1.3 (-13.6%)	0.9 (194.5%)
니카라과	42.6 (36.1%)	66.4 (55.9%)	47.1 (-29.0%)	80.2 (70.2%)	23.4 (63.7%)

(자료원 : 무역협회 KOTIS 통계)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 □ 우리나라의 현지 기업진출 현황

- 코스타리카에는 시내버스 조립생산을 하는 Daewoo Bus Costa Rica 외에 섬유 관련 업체로는 부흥사만 진출해 있음.
- 니카라과에는 한세, 세아 등 현재 18개사의 섬유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2004년 이후 신규 진출 또는 진출을 계획하는 업체가 증가하는 상황임.

## □ 우리 기업의 대미 우회수출 현황

- 코스타리카는 Daewoo Bus Costa Rica사가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 현지에서 버스를 조립생산하며, 코스타리카 내수시장을 겨냥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대미 수출실적은 없음. 양복생산업체인 부흥사는 생산전량을 미국에 수출 중이며, 연간 수출실적은 3백만불 정도임.
- 니카라과 진출 기업 18개사 중 1차 계약자로 미국에 섬유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한세, Istmo(신성), Senika(세아), 유진 등 4개사를 꼽을 수 있으며, 이들의 대미 수출규모는 약 1억5천만불 정도로 집계됨. 여타 기업의 경우 메이저 기업의 하청, 부자재 공급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나. 코스타리카, 니카라과의 대미 의류 수출 동향

- 코스타리카의 경우는 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섬유 수출은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주종품목 의류의 대미 수출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5년도의 경우도 감소추세는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 반면, 니카라과는 중미.카리브 주요국 가운데서 가장 저렴한 노동단가 메리트를 기반으로 최근 대미 의류 수출이 가장 활발히 성

장하는 나라이며, 쿼터가 폐지된 2005년에도 동 신장세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의 대미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2003		2004		2005(1-2)	
	섬유	의류	섬유	의류	섬유	의류
코스타리카	5	589	8	516	2	67
니카라과	0	484	0	595	0	110

(자료원 : 미국 섬유국)

다. 쿼터해제에 따른 양국 섬유산업 영향 및 동향

1) 가격경쟁력 측면(수출단가)의 영향

- 코스타리카 및 니카라과 섬유기업의 경우 중국, 동남아 기업 대비 가격경쟁력에서 약세임.
- 그러나 니카라과는 중미.카리브 인근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단가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음.

2) 노동력 측면의 영향

-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의 경우 쿼터해제 이후 아직까지는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기업도산 및 대량 실업사태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3) 주요품목별 (원단, 원사) 영향

-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양국은 아직까지는 원단, 원사 등 원부자재 가격 변동 및 수입선 전환 등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4) 현지업체 동향

- 중국제품 대비 경쟁력 취약을 단기적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화 노력으로 일부 흡수하고 있음.
-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도적 보완 없이는 경쟁력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CAFTA 체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
-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니카라과는 여타 회원국과는 차별적으로 10년 간 최근 1억\$ / M의 제 3국 원단을 사용한 의류에 대해서도 CAFTA 제품으로 인정받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5) 현지진출 국내업체 동향

- 생산거점 다변화
  - 니카라과 진출기업 중 미국 바이어의 오더를 직접 수주할 정도의 규모를 갖춘 기업은 한세, 신성, 세아, 유진 등 4개사 정도임.
  - 이들은 아시아 지역 소재 생산거점을 통해 중국산과 경쟁하는 한편, 니카라과 공장은 빠른 납기 주문을 소화시키는 등 생산기지 포트폴리오를 통해 쿼터제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고 있음.
- 무역특혜 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
  - ISTMO(신성통상)의 경우 미국산 원사를 사용, 온두라스 공장에서 생산된 원단으로 니카라과에서 의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CBI 프로그램으로 수입관세를 면제받고 있음.
  - 향후 FTA 발효시 확대될 지역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역외에서 수입하는 면제품(수입관세 : 19-20%), 화섬제품(수입관세 : 30-32%)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노력

- 기존 한세 및 신성의 공장 증축과 함께 세아도 대규모 공자투자를 단행,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이는 미국 바이어의 노동환경 준수 요구 및 하청 자제 요청에 따라 본공장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것이며, 향후 치열한 경쟁에 대비한 사전 포석의 의미도 있음.
- 미국 수요자의 노동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봉제공장의 경우 점차 영업환경 악화가 우려됨.

### 3. 도미니카공화국

#### 가. 우리나라의 섬유류 현지 수출현황, 기업진출 및 대미 우회수출 현황

##### □ 우리나라의 현지 수출현황

- 한국의 경우 2004년도에 대 도미니카 수출 규모는 32백만불 수준으로 전년 대비 -10%로 지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쿼터제가 폐지된 2005년 3월 현재에도 감소세는 지속되어 -2.9%로 6백만불 수출을 기록하고 있음.
- 원인은 중미.카리브 지역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의 대미 우회 수출이 감소하고,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에 비해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현지 진출 한국 업체의 섬유원부자재 수입 및 현지 섬유경기 침체로 수입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섬유류 수출동향

(단위: 백만불)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1~3월)
도미니카	62.2 (-27.8%)	45.2 (-27.3%)	35.2 (-22.0%)	31.7 (-10.0%)	6.1 (-2.9%)

(자료원 : 무역협회 KOTIS 통계)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 □ 우리나라의 현지 기업진출 현황

- 한국 업체는 카리브원조계획(CBI)을 활용해 미국으로 우회수출을 하기 위해 도미니카에 1983년 유화통상을 필두로 현지 수출자유공단지역(Free Zone)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80년대 후반 40여개사까지 진출했었으나, 이후 지속하여 2005년 현재 24개사의 섬유봉제 업체가 진출해 있음.
- 2004년 말 1개사(동국)가 철수하여 현재 “미래와사람”, “유풍” 등 24개사의 한국 기업체가 영업하고 있으며, 총 투자금액은 약 5천만불 규모이며, 현지 고용 인력은 약 6천명 수준임.

## □ 우리기업의 대미 우회수출 현황

- 현지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 업체는 미국 바이어로부터 오더를 받아 미국으로 전량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영향 및 도미니카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임금단가 인상으로 경쟁력 약화되어 전반적으로 고전하고 있음.
- 현지 진출 한국업체 중 니트, 셔츠류를 생산하는 “미래와사람들 (Will-BES)”, 모자를 생산하는 “유풍(BJ&B)” 등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액은 연간 1억불 이상으로 추정됨.

## 나. 도미니카의 대미 의류 수출 동향

- 도미니카는 주종 수출품목인 의류의 경우 금액 면에서 미국시장 점유율이 1995년 5%에서 2002년 4%, 2003년 3.5%, 2004년에는 3.1%로 지속 하락하고 있음.
- 2004년 기준 도미니카의 대미 수출액은 의류는 20억불, 섬유는 7백만불 수준임.

- 미국 무역위원회(USITC)의 섬유쿼터폐지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미국시장 독식으로 인한 도미니카의 미국시장 수출손실 추정액인 2004년 6월-2006년 12월 12억87백만불로 전망했으나, 그래도 빠르게 재고가 회전하는 제품이나 시즌 중간에 오더를 채우기 위한 경우에 소싱국가(2차 공급국가)로서 활용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망했음.

<도미니카공화국의 대미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도미니카 공화국	2003		2004		2005(1-2)	
	섬유	의류	섬유	의류	섬유	의류
	4	2,124	7	2,059	1	250

(자료원 : 미국 섬유국)

다. 쿼터해제에 따른 양국 섬유산업 영향 및 동향

1) 가격경쟁력 측면(수출단가)의 영향

- 도미니카는 현재 극심한 외환부족에 의한 경기침체로 2003년 말부터 IMF 관리체제로 전락해 있으며, 2003-2004년 환율이 40대에서 현재 28로 급격하게 하락해 봉제산업 근로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인상된 상태임.
- 또한 환율은 인하되었으나, 고유가에 기인하여 물가는 제자리 수준이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인상 요구가 강하고, 작년 말에 15% 임금인상에 이어 금년 상반기 10% 추가인상이 합의되어, 봉제공장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중고의 임금단가 상승의 압력을 받음.
-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은 3,596.25페소로 128불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이고, 평균 봉제공장 근로자 임금 8,000페소 기준으로 볼 때

임금단가는 285불 수준으로 인근국에 비해 매우 높아진 편.

- 또한 현지 전기사정 열악과 고유가로 인해 유류대 비용이 1.5배 높아졌으며, 전화세 및 각종 세금도 1.5배 이상 높아진 상태이므로 평균 생산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음.
- 또한 중미 CAFTA 5개국에 비해서도 섬유기계 등 자본재 수입 시 관세가 3%로 높은 편이고, 환전세가 특이하게 13% 부과되고, 부가가치세도 여타국에 비해 16%로 가장 높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뒤지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업체 중심으로 현재 정부에 자본재 무관세를 요청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도미니카와 중미 5개국 자본재 및 원자재 세금 비교>

세 금	도미니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돌	니카라과	온두라스
관 세	3%	1%	0%	0%	0%	0%
환전세	13%	0%	0%	0%	0%	1.5%
부가세	16%	없음	12%	13%	15%	없음
총 계	32%	1%	12%	13%	15%	1.5%

2) 노동력 측면의 영향

- 쿼터 폐지에 따른 도미니카 섬유산업 침체의 영향으로 현재 도미니카에서는 1만명 정도의 실업자가 금년 들어 4월 말 현재까지 발생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2004년까지 섬유 부문에서만 2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렇게 될 경우 도미니카는 2004년 실업률 18%에서 최고 1.7%가 증가하여 총 19.7%의 실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도미니카중앙은행이 전망 자료를 내놓았음.

3) 주요 품목별 영향

- 도미니카의 대미 수출 품목으로 원단은 별로 없고, 대부분 남성용 및 여성용 니트의류, 스포츠 웨어, 모자류, 바지와 내의류 등의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도미니카의 미국 의류시장 점유율은 1995년 5%에서 2004년 3.1% 대로 축소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및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의 경쟁관계에 있는 남성용 및 여성용 니트의류, 스포츠 웨어, 모자류, 바지 및 내의류 등 전 분야에서 수출단가가 평균 10-25%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음.
- 금년 들어서의 특징은 미국 수입바이어가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산으로 급격하게 수입선을 변경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존 도미니카 바이어에게 가격 인하 요구와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추세라고 함.

#### 4) 현지업체 동향

- 도미니카의 섬유업체는 쿼터제 폐지에 따른 도미니카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때에는 섬유업체가 고사할 것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정부 측에서 인식하도록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음.
- 도미니카의 섬유업체 및 조합이 주장하는 대 정부 요구사항
  - 도미니카 섬유업체의 경쟁력 제고 방안 다각적 강구
  - 섬유 관련 수출을 위한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시 관세 철폐 내지 인하
  - 근로자임금 10% 인상안 금년 내 유보
  - 섬유봉제업체에 대한 은행 대출 확대 및 정부보조금 확대
  - 안정적 전기 공급 요청
  - 미국과의 FTA 강력 추진

- 도미니카 최대의 공단이 있는 Santiago의 Cibao 공단 입주업체 중 대형 섬유업체 5개사가 현재까지 공장을 폐쇄했으며, 공장매각을 발표한 업체도 3개사 수준이며, 중소 섬유업체는 작년 말부터 40여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도미니카 최대 섬유업체인 Grupo M사의 경우 쿼터 폐지 이후 미국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수출단가를 낮추기 위한 치열한 노력과 함께, 고급 브랜드 제작, 고부가가치 품목 발굴, Quick Turn Delivery에 적용할 수 있는 장비 현대화, 인력의 탄력적 운용, 디자인 및 품질관리 강화 및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의 중장기적 전환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음.

#### 5) 현지진출 국내업체 동향

- 도미니카에 진출한 섬유봉제업체들은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어려움뿐 아니고, 도미니카 경제난에 기인한 환율문제, 인건비, 원자재 및 전기.전화세 상승으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임.
  - 2004년도까지 환율이 40대에서 2005년도에 28로 급락하면서 현지화로 지급하는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는 효과로 인해 어려운 상황 하에 정부-노조연합 협의안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상반기에 10% 추가 인상해야 하는 부담감 가중
  - 환율이 인하되었으나, 물가는 하락하지 않고 고유가에 기인한 유류대 및 전기.전화세는 오히려 인상되어 생산단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섬유쿼터 폐지 이후의 한국 투자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미국 바이어들의 단가인하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강도 높게 나오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오더량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업체의 경우 향후 섬유봉제업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미니카 내수를 할 수 있는 품목 개발 및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타업종 전환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 또한 임금단가가 현저히 싼 인근국 하이티로의 공장시설 이전을 검토하는 일부 업체도 있으나, 하이티의 정정 불안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임.
- 작년에 1개사(동국)가 도미니카에서 철수했으며, 금년의 경우 철수를 고려하는 업체는 아직까지 없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섬유쿼터 영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하반기에는 철수업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현지 투자진출업체들은 환율의 35대로의 인상 및 미국과의 FTA가 발효해야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달리 환경이 개선되기를 고대하는 상황임.

## VI. 중미.카리브 국가별 대책 수립 동향

### 1.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 과테말라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IVA(부가세) 폐지를 위해 관계 법령 개정 추진
  - 현행은 부가세를 선납부한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급받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부작용이 많음
- 과테말라 등 중미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해 적극 홍보
  - 일부 미국 방적업체 과테말라 투자 확정 및 타당성 검토 중
- 중미 세관통합 등 중미공동시장화 노력 가속화를 통해 대외경쟁력

## 강화

- 공항, 고속도로, 항만, 공단 등 인프라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
- 봉제기업 종사 인력에 대한 교육, 기술 훈련 강화
- 미-중미 자유무역협정 조기 발효를 위한 대미 로비 강화

## 2.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의 경우 미국과 중미 FTA인 CAFTA를 적극 추진하는 외에는 국가차원의 별도 대책은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임.

## 3. 도미니카공화국

- 도미니카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산하의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 정부 상공부 관리, 정부기관 산업강화협회(Corporacion de Fomento Industrial) 및 섬유단체 대표들로 구성.운영
- 도미니카 수출자유공단(Free Zone)의 주요 입주업체인 섬유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애로사항 청취 및 정부 건의를 위한 수출자유공단 국가자문위원회(CNZFE)내에 섬유업체 정기 간담회 구성.운영
- 중미 CAFTA 5개국 대비 높은 자본재 및 원자재 관세 인하조치 예정
  - 현행 3% 관세 → 무관세 추진
  - 환전세 13% → 대폭 인하 또는 폐지 추진
  - 부가가치세 16% → 12-13%대로 인하 추진

- 도미니카, 중미 CAFTA 5개국 연합 미국과의 FTA 발효 추진
  - 2004년 8월 5일 체결된 미국-중미 CAFTA-도미니카 FTA 발효를 위해 자국 의회 통과는 물론 미국 의회 비준을 득하기위한 전방위 노력 경주
  - 섬유쿼터 폐지로 난국에 처한 섬유산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FTA 발효를 적극 추진
  
- 중소기업 섬유업체의 자금지원 확대
  - 중소기업 섬유업체의 자금난 해결을 위한 은행 대출조건 완화 및 지원규모 확대
  
- 섬유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지원
  - 위기에 처한 섬유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방안 모색을 위해 수출투자진흥센터(CEI-RD), 섬유수출협회 및 의류수출협회와 공동 연구 지원

## VII.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

- 쿼터 폐지 후 현지 섬유산업 동향 예의 주시
  - 쿼터 폐지 후 현지 섬유산업 동향 및 정책 변화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강화
  
- 미국과의 FTA에 대비한 현지진출 강화
  - 향후 중미 중미 5개국의 미국과의 FTA(CAFTA) 발효는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시 중국산 등 역외상품 대비 수입관세 부분만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 따라서 한국산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에 대비 중미.카리브 지역에 방직산업, 의류부자재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또한 현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단순 봉제 투자보다는 연관산업 동반 진출을 통해 일관 생산체제를 갖추는 노력 필요

-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생산기지의 포트폴리오화)**
  - 구조적으로 현재의 중국과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쟁력 차이를 활용한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 필요
  - 즉, 미국 수출시 납기가 장기이고, 대량주문 상품의 경우는 중국과 동남아에서 생산하고, 중미.카리브는 미국과의 인접성을 활용한 Quick Delivery, 유행상품, 소량 다품종 상품에 특화해서 생산
  
- **Full-Package라인 구축**
  - 상품 인도기간 단축(Short-Delivery) 및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Full Package라인 구축 필요
  
- **M&A를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 큰 기업과 소규모 영세 하청업체간 M&A를 통해 지나친 영세 봉제업체 난립으로 인한 우리기업간 과당경쟁을 방지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대외 경쟁력 강화
  
- **인력 고용의 탄력적 운영**
  - 시장상황에 맞추어 고용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 인력관리 체제 수립
  
- **비 가격경쟁력 적극 활용**
  - 중미지역 우리 섬유업체는 그간 미국 바이어의 노동환경 및 노동인권 개선요구에 따라 여타 지역 대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이를 개선시켜 왔음.
  - 따라서 중미.카리브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노동환경 및 인권수준의 강점을 적극 홍보,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미국업체와의 제휴 강화**
  - 2005년 1/4분기 중국산 섬유제품의 급증에 따라 미국 섬유업체는 세이프가드 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세이프가드 제소는 중미.카리브 진출 우리 기업에 반사이익을 가져다 주는 만큼, 적극적인 제휴와 협력방안 모색 필요.